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이 현 주

안 명 희†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 과정을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가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정서조절 능력으로 평가한 정신화 능력과 불안과 우울로 평가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경로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어머니 357명의 자기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정신화 능력을 매개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정서는 다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한편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직접 경로로,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하여 간접 경로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은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자녀에 대한 훈육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신화 능력은 회피애착이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경로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불안정 성인애착, 정신화 능력, 불안, 우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청소년 자녀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작성됨.

† 교신저자 : 안명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Tel : 02-705-8833, E-mail : christine@sogang.ac.kr

애착이론에서는 어린 시절 주요 양육자와의 정서적 경험을 내면화한 자신과 중요한 타인에 대한 표상 혹은 이해의 틀인 내적 작동모델로 친밀한 대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태도를 설명해 왔다(Bowlby, 1979). 이와 관련하여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접근에서는 불안정한 초기 부모-자녀 애착 혹은 애착 trauma를 경계선 성격장애 혹은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장애의 원인요인으로 개념화 한다(Bouchard, Target, Lecours, Fonagy, Tremblay, Schachter, & Stein, 2008; Burnette, Davis, Green, Worthington Jr, & Bradfield, 2009; Choi-Kain & Gunderson, 2008). 그리고 최근 들어 애착이 자신과 타인의 욕구, 감정, 신념과 같은 마음상태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성찰기능(reflective function)인 정신화(mentalization)의 발달을 촉진하는 맥락(Bateman & Fonagy, 2004; Fonagy, 2001; 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을 제공하며, 불안정 애착은 정신화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Fonagy, 2001; Rudden, Milrod, Target, Ackerman, & Graf, 2006; Skarderud, 2007).

정신화 능력이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사고와 정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양식에 관여하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라면, 부모의 정신화 능력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훈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이 증진되면, 자신의 부정적 정서체험을 조절하는 정서조율 능력이 증대되어 불안 및 우울이 감소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역기능적 양육태도 또한 감소할 것이라 가정 가능하다.

발달적으로 분리개별화의 욕구가 증가하는 사춘기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불안정 애착의 부모인 경우

사춘기 자녀의 정상적인 자율과 독립에 대한 욕구로 인한 훈육적 힘겨루기는 애착관련사고와 정서를 촉발하여 분리와 상실의 경험이 활성화되는 경험이 잦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감정적 대처의 필요 역시 부모에게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자녀 중심의 순응적 양육태도를 견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정신화 능력이 증가하면 특히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는 경험이 적을 수 있어, 과도하게 자녀의 행동을 제재하고 비난 혹은 인신공격을 하거나 애정 철회를 이유로 억박지르는 등의 감정적 대처도 감소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

정신화(mentalization) 또는 성찰기능(reflective function)은 개인의 욕망, 감정, 신념과 같은 주관적인 심리상태(subjective mental states)를 기초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Fonagy & Bateman, 2007). 정신화의 핵심은 어떤 일을 심리내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 표상능력으로(Bouchard, et al., 2008),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체험하는 정서 경험의 의미를 관계적 맥락에서 의식화할 수 있는 일종의 상위 정서조절 능력이다. 타인에 대한 느낌, 믿음, 그리고 태도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며, 타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측가능하게 하여 대인 관계 상황에 가장 적절한 감정적 대처 양식을 가동시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정신화 능력을 통해 부모는 자녀 행동의 의도를 파악 혹은 공감 할 수 있어, 자녀의 자기 조절, 특히 정동조절 능력을 촉진시켜줄 수 있다(Fonagy, 2001; Fonagy & Target, 1997).

Fonagy는 생애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self regulation)능력이 습득된다고 보아, 정신화 능력 또한 안정적 애착 관계에서 발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안정 성인애착의 어머니의 경우 성찰기능에 문제가 있어, 친밀한 대상관계와의 상실 및 거부와 같은 고통스런 정서적 경험에 매몰되거나 혹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단절하는 정서 전략을 취하게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정신화 관련 연구에 의하면 심각한 성격장애 혹은 정서장애를 보이는 이들의 경우 성찰기능의 결여를 보인다(Fonagy, 2001; Fonagy & Target, 1997). 성찰기능의 결여, 특히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다양한 정신 병리의 발달, 재발,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Bouchard, et al., 2008).

이처럼 성찰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동기저에 있는 정신적 상태의 속성을 알아차리기 힘들어 지금-여기에서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 감정의 색깔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두려움 없이 순간 흘러가는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해 비 판단적인 수용을 불가능하게 하여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 거리를 두고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찰기능은 자기조절, 특히 정동조절을 촉진하므로 성찰기능의 저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충동을 조절

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타인의 마음상태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 능력을 촉진하여 사회인지적 기술의 발달을 돕고 또한 명확한 외부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성찰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개별적인 욕구와 구체적 현실의 상황적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상황적으로 바람직한 정서조절전략을 유연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손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성찰기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는 정서조절 능력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서우정, 2007; Barlow, et al., 2004; Campbell-Sills, et al., 2006; Garnefski & Kraaij, 2006; Martin & Dahlen, 2005; McFarland & Buehler, 1997; Rude & Macarthy, 2003; 최예종, 조용래, 2009 재인용). 최근 들어 정서조절능력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정서에 대한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여 개인이 이루고자 목표에 따라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서적 반응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정서조절전략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분류하고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Gratz & Roemer, 2004). 하지만 정서조절능력을 정신화 혹은 성찰기능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 원인요인을 성인애착의 차원에서 탐색하거나, 우울 혹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경우는 아직 없다.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

애착은 개인이 현재의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착관련 사고 및 정서와 관련이 깊으며, 애착 관련 정서조율 능력 혹은 방어적 전략의 차이로 그 개인차가 드러난다고 알려져 있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각기 다른 정서적 대처전략인 과잉 활성화(hyperactivation)와 비활성화(deactivation) 정서조율 전략을 사용한다(Mikulincer & Shaver, 2003). 불안애착의 경우 애착 대상에 대한 근접성을 획득하고 그들의 주의와 지지를 확인하려는 강렬한 노력이 병행되는 과잉 활성화 전략에 의존한다. 즉, 애착대상에 대한 근접성과 보호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며 거부 혹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징후에 고도로 민감하기에 대인관계에서 개인적인 결핍이나 위협에 대해 반추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 반면, 회피애착의 경우 애착대상에게 근접성을 추구하려는 마음이나 행동을 억누르고, 애착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위협자체를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비활성화 전략을 쓰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거리를 최대로 유지하고 친밀함에 대해 불편해하며 개인적인 힘과 자기 신뢰를 얻으려고 애쓰는 동시에 고통스런 생각과 기억을 억제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애착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잠재적인 심리적 기제로 결혼생활 혹은 양육적 관계에서 활성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Kobak, 1999). 따라서 불안정 성인애착은 그 하위유형에 상관없이 자녀 혹은 배우자의 애정에 대한 확신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애착 관련 사고와 감정

이 쉽게 촉발되어, 이에 대한 조율능력의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더욱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되어 오히려 더 공격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이 된다. 즉,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부모의 정서조절능력이 심각하게 도전받을 수 있다. 관련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착은 자녀에 대한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van Ijzendoorn, 1995; Ward & Carlson, 1995), 안정적 성인애착의 어머니는 자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며 애정을 표시하는 애정적 행동을 수행하는 반면, 불안정 성인애착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Benoit & Parker, 1994).

초기 애착 연구는 ‘낮선 상황’ 절차를 활용하여 부모와 유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성인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접법인 성인애착면접(AAI)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인들의 원부모와의 애착 관련 마음 상태(state of mind)를 파악하는 성인애착 연구로 이어졌다. 이후 1980년 중반부터 남녀 간의 친밀한 애정적 관계에서 초기 부모-자녀 애착 관계 양상이 재현되는 것에 주목하여, 원부모와의 초기 애착경험에 대한 회상 자료보다는 현재의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평가한 자기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애착 유형을 추론하기 시작하였다(Hazan & Shaver, 1987). Bartholomew와 Horowitz (1991)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안정형(secure), 집착형(preoccupied), 거부형(dismissing) 및 두려움형(fearful)의 4가지 애착유형을 개념화하였다. 이어, Brennan과 그의 동료들(1998)은 자기표상

과 타인표상의 저변에 있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정도로 애착 양상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S)는 높은 신뢰도와 높은 구성타당도 및 예언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Shaver & Mikulincer, 2002; Shaver, Belsky, & Brennan, 2000).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수준으로 평가하여,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의 주요 요인으로 특히, 부모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불안, 우울 및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enens, 2008; 안명희, 2010b; Barber, 1996;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기 본위로 자녀의 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의 심리적 역동 특히,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안명희, 2010b; Barber & Harmon, 2002; 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 따라서 과도한 수행기준을 갖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지나친 비판과 인신공격, 언어적 표현제재를 가하며, 죄의식을 주고, 애정철회를 빌미삼아 부모 본위로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현실을 조정하려는 침해적, 공격적 양육태도의 수준으로 측정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 자신의 잦은 감정기복, 즉 부모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과 같은 부모의 정서적 미성숙에 기인하며 특히, 부모 자신의 불안정 애착이 그 중요한 원인요인으

로 확인된 바 있다(안명희, 2010a; 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Soenens, et al., 2005).

불안정 성인애착, 정신화, 부정적 정서, 심리적 통제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정서적 경험을 내면화하여 형성되는 내적 작동 모델인 애착은 이후의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이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owlby 1979; Mallinckrodt, 2000). 애착 관계가 형성, 유지, 붕괴, 재생되는 과정에서 매우 강한 정서 체험이 일어나므로(Bowlby, 1979), 정서는 내적 작동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촉발 단서이며 이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Hazan, Gur-Yaish, & Campa, 2004). 바꾸어 말하면, 생애 초기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정서적 돌봄과 훈육으로 정의되는 초기 부모-자녀관계는 정서조절 능력이 내재화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초기 대상관계는 자기 마음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마음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찰적 기능인 정신화(mentalizing)가 발달하는 맥락이 되는 것이다(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이는 애착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한 표상적 체계, 즉 정신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부모의 정서적 돌봄의 수준은 자녀의 잠재적인 정신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나선영, 안명희, 2011).

초기 부모-자녀관계에서 형성된 안정적 애착은 정신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맥락을 제

공하며, 정신화 능력은 다양한 정신병리의 보호요인이 된다(Bateman & Fonagy, 2004; Fonagy, 2001). 따라서 불안정 애착의 경우라도, 정신화 능력이 향상되면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가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 특히, 그 취약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적 정서경험 혹은 병리적 대처양식을 중재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불안정 애착은 다양한 부정적 정서 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김정란, 이은희, 2007; 안명희, 2010; 안하얀, 서영석, 2010; Wei, Heppner, & Mallinckrodt, 2003; Wei, Vogel, Ku, & Zakalik, 2005) 특히, 불안애착은 우울뿐만 아니라 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assidy & Shaver, 2008; 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어머니의 정서는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정윤주, 2008; Belsky, Robins, & Gamble, 1984).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자기 몰입을 가중시켜 자녀에게 따뜻하고 민감하게 대하는 부모 민감성을 저해한다(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침입적이며 자기염려에 집착해서 자녀의 자기표현을 억제하는 반응을 하고 자녀에 대해 더 공격적이고 무관심하다고도 알려져 있다(김정란, 이은희, 2007; Cicchetti & Toth, 1995). 반면 불안한 어머니들은 온정적이지 않으며, 거부적, 비판적, 과잉 통제적 혹은 과잉보호하는 양육태도를 보인다(강영미, 2004). 따라서 우울한 부모는 무관심하고 불안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집착이 크다는 상대적 차이(안명희, 2010; Adam, Gunnar, & Tanaka, 2004)를 보이지만 불안 및 우울의 부정적 체험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현실에 공감

하지 못하고 순응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를 견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에 부모의 부정적 정서증상이 심각한 경우 자녀에 대한 공격성, 정서적 무관심 혹은 지나친 집착과 의존성이 높아지며 심지어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처럼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통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어머니의 정서문제가 자녀에게 투사되어 자녀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할수록 어머니의 불안, 우울의 부적 정서경험이 증가하며, 불안하고 우울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한 애정적 거부와 공격성은 심화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심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기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사춘기 시기는 자녀가 독립된 존재로서의 정체감을 획득하는 제 2의 분리 개별화 시기로 이러한 발달적 전환기에 심리적 분리와 개별화를 추구하는 자녀와의 갈등 경험은 어머니로 하여금 초기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관련 사고와 정서가 과잉 활성화되는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불안정 애착에 기인하여 자녀의 심리적 영역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자녀의 독립적인 정체감 확립을 위한 충분한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심리적 욕구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녀의 시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조망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변화를 요구하는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에서 분리와 상실의 감정을 경험하며 이와 같은 위협적인 정서를 조율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정신화 능력이 불안정 성인 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화 능력을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 경험의 의미를 의식하고 자녀의 심리적 현실에 공감하여 이에 근거한 적절한 정서적 책략을 활용할 수 있는 상위의 정서조절능력으로 보고,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정신화 능력과 정서 그리고 심리적 통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경로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혹은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본인의 정신화 능력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가 가중되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가설 모형 1(그림 1)로 설정하였다. 한편 부모-자녀의 초기 상호작용 관계에서 정서를 조율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직접적으로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야기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일관적이며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Fonagy와 동료들의 경험적 연구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은 직접적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인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경험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적이거나 혹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것으로 밝혀져 그 경로가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경쟁 모형 2와 3을 설정하였다. 즉,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이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에 각각 직접영향을 미쳐 심리적 통제에 이어지고, 또한 정신화 능력이 심리적 통제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쟁모형 2(그림 2)와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신화, 부정적 정서, 심리적 통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신화 능력이 심리적 통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쟁 모형 3(그림 1)을 설정하고 이들을 세 가지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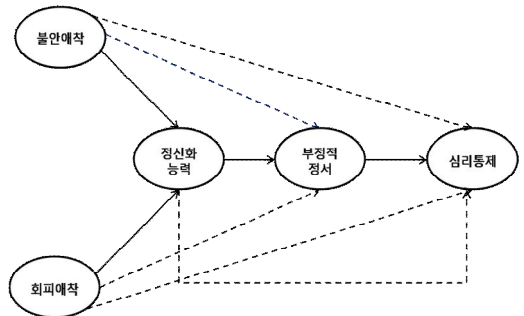


그림 1. 가설 모형1과 경쟁모형 3
(경쟁모형 3은 점선의 경로를 추가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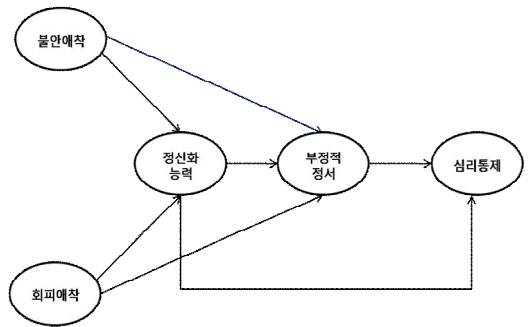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2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기를 중, 고등학교 시기로 간주해 왔으나,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Papalia & Olds, 1995).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서울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초 4~중3 학생을 통해 담임교사가 각 가정으로 설문지를 보내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총 520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질 집단 확보를 위해, 첫 자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둔 30, 40대 어머니로 대상선정을 제한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520명의 설문지에서 357명만을 최종 선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어머니들의 연령은 30대가 141명(39.5%), 40대가 216명(60.5%)이며,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 20명(5.6%), 초등학교 5학년 78명(21.8%), 초등학교 6학년 107명(30.0%), 중학교 1학년 37명(10.4%), 중학교 2학년 62명(17.4%), 그리고 중학교 3학년 53명(14.8%)이었다. 어머니들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217명(60.8%)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장을 갖고 있는 140명(39.2%)의 경우, 사무직 및 관리직은 64명(17.9%), 전문직 46명(12.9%), 자영업 30명(8.4%)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152명(42.6%), 대졸이상인 205명(57.4%)이었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하 73명(20.5%), 200~400만원 191명(53.5%), 400만원 이상이 93명(26.0%)으로 학력과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중산층으로 추정된다. 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한 관

련 변인들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검증 결과, 초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를 포함한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

Brennan, Clark과 Shaver(1998)의 개정판 성인용 친밀 관계의 애착척도(Encounter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R)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을 평가하였다. ECR-R은 성인 애착의 양상을 긴밀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회피수준을 각각 18문항으로 평가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환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불안애착은 거절에 대한 공포와 유기(abandonment)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예,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을 측정하고, 회피애착은 친밀함에 대한 회피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을 측정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불안애착은 .89, 회피애착은 .85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각각 .88과 .79로 나타났다.

정신화 능력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고 조용래(200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판 정서조절 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찰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동 기저에 있는 정신적 상태의 속성을 알아차리기 힘들어 현재 지금-여기에서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경향’(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으로 측정한다.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예,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은 자신의 감정의 색깔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 한다”)은 두려움 없이 지금-여기에서의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해 비 판단적인 수용이 불가능한 정도를 측정한다.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능력 및 행동 조절 능력이 손상된 정도를 ‘충동 통제 곤란’(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과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으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성찰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개별적인 욕구와 구체적 현실의 상황적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상황적으로 바람직한 정서조절전략을 유연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손상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정서 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

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으로 측정하여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다면적으로 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92였고 6개 하위 척도들의 내적 신뢰도는 .76~.89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는 .93였고 6개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76~.88이었다.

불안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지표 중 불안은 Spielberger(1970)가 개발한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한국어판 상태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TAI는 원래 정신 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의 불안을 조사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동시에 임상적으로 불안한 집단을 판별하는데도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AI-state는 Likert-type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대단히 그렇다)로 측정되며 총점이 20~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는 .92이다.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역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측정하였다. BDI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일반인의 경우 내적 신뢰도는 .78였고, 우울 환자의 경우 내적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

도는 .88 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하고 전숙영(2007)이 변안하여 수정한 부모용 심리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심리 중 통제하는 정도를 보고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심리통제 측정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자녀의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제한하고 감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제재, 잦은 감정 기복과 자녀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영하는 인신공격, 그리고 자녀의 잘못을 빌미로 죄책감 유발하고 애정을 철회하는 애정철회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을 예로 들면, “나는 우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이의 말을 막고 내 얘기부터 하는 편이다”, “나는 아이에게 잘해주다가도 화를 낼 때가 많다”, “나는 아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차갑게 대한다” 등이 있다. Likert-type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대단히 그렇다)로 측정되며 총점은 16~64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전숙영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6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는 .80이었으며 하위 유형별로는 표현제재 .62, 인신공격 .67, 애정철회 .47로 나타났다.

자료 처리 및 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기술적 통계는 SPSS 18.0을 사용하였고 AMOS 18.0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애

착과 회피애착은 여러 문항으로 각각 하나의 잠재 변인을 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바탕으로(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2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단일 척도라는 가정이 만족될 경우 각각의 문항꾸러미들이 비슷한 요인 적 재량을 가질 때 꾸러미에 의한 잠재변인의 구인 효과가 최대화되기 때문에(Russel, et al., 1998)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을 묶었다. 나머지 척도들은 각각의 하위 요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측정변인을 구인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값(χ^2) 뿐만 아니라 TLI, CFI, RMSEA, SRMR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관련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넓게 표집되어 있으므로 초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집단으로 추정하고 다음 단계의 분석으로 들어갔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어머니들은 대체로 안정된 애착 수준을 보이며 정신화 수준도 대체로 양호한

표 1. 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2	3	3-1	3-2	3-3	3-4	3-5	3-6	4	4-1	4-2	5	5-1	5-2	5-3
1. 불안애착	-															
2. 회피애착	.36**	-														
3. 정신화 능력	-.63**	-.26**	-													
3-1. 정서주의·자각	-.24**	-.11*	.52**	-												
3-2. 정서 수용성	-.19**	-.22**	.75**	.18**	-											
3-3. 정서 명료성	-.52**	-.28**	.78**	.30**	.49**	-										
3-4. 충동통제	-.48**	-.16**	.83**	.17**	.63**	.61**	-									
3-5. 목표지향행동	-.46**	-.15**	.71**	.12*	.51**	.43**	.69**	-								
3-6. 정서조절전략	-.58**	-.26**	.83**	.23**	.63**	.60**	.71**	.61**	-							
4. 부정적 정서	.47**	.38**	-.52**	-.22**	-.46**	-.44**	-.40**	-.35**	-.47**	-						
4-1. 우울	.36**	.25**	-.36**	-.13*	-.35**	-.30**	-.28**	-.23**	-.48**	.85**	-					
4-2. 불안	.46**	.41**	-.54**	-.24**	-.45**	-.45**	-.42**	-.37**	-.35**	.93**	.59**	-				
5. 심리통제	.39**	.19**	-.43**	-.10	-.37**	-.36**	-.40**	-.36**	-.40**	.45**	.26**	.50**	-			
5-1. 표현제재	.33**	.12**	-.31**	-.04	-.29**	-.29**	-.29**	-.23**	-.30**	.35**	.23**	.38**	.78**	-		
5-2. 애정철회	.26**	.15**	-.29**	-.14**	-.26**	-.23**	-.26**	-.27**	-.27**	.25**	.11*	.30**	.76**	.32**	-	
5-3. 인신공격	.34**	.18**	-.43*	-.06	-.34**	-.36**	-.39**	-.35**	-.39**	.48**	.30**	.51**	.83**	.61**	.39**	-
M	3.63	2.62	3.28	3.78	3.35	3.98	3.66	3.41	3.75	1.71	1.40	2.03	2.18	2.44	2.02	2.02
SD	.73	.92	.52	.88	.76	.80	.86	.80	.70	.38	.34	.49	.47	.47	.72	.61

주. N=357, ** $p < .01$, * $p < .05$

편이고, 불안과 우울의 부정적 정서의 수준 및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은 안정적인 성인 애착 유형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편이고 자녀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일관적이며 안정적인 양육태도를 견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일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들의 불안애착은 정신화 능력($r = -.63^{**}$)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자신의 우울($r = .36^{**}$), 불안($r = .46^{**}$) 및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r = .39^{**}$)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들의 회피애착은 정신화 능력($r = -.26^{**}$)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신의

우울($r = .25^{**}$), 불안($r = .41^{**}$) 및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r = .19^{**}$)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은 우울($r = -.36^{**}$), 불안($r = -.54^{**}$) 및 심리적 통제($r = -.43^{**}$)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역기능적 양육태도인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의 우울($r = .26^{**}$) 및 불안($r = .50^{**}$)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조모형 검증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에서 자녀에 대한 심리

표 2.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SRMR
가설모형 1	215.57	85	.94	.95	.066	.065
경쟁모형 2	166.67	82	.96	.97	.054	.043
경쟁모형 3	164.65	80	.96	.97	.055	.042

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가 이중 매개할 것으로 설정한 가설 모형 1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5, N=357) = 215.57, p < .001$; TLI = .94; CFI = .95; RMSEA = .066; SRMR = .065. 한편,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 애착에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직접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경쟁 모형 2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2, N=357) = 166.67, p < .001$; TLI = .96; CFI = .97; RMSEA = .054; SRMR = .043. 또한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 정신화 능력, 부정적 정서, 심리적 통제 간에 모두 직접 경로를 설정한 경쟁모형 3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0, N=357) = 164.65, p < .001$; TLI = .96; CFI = .97; RMSEA = .055; SRMR = .042.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 모형 1과 경쟁 모형 2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3) = 48.90, p < .01$.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정교한 경쟁 모형 2가 더 적합하였다. 또한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경쟁모형 2와 경쟁모형 3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2) = 2.02, p > .05$.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간명한 구조를 지닌 경쟁모형 2를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불안

애착($\beta = -.70, t = -11.31, p < .001$)은 정신화 능력에 대한 직접 효과는 유의미한 반면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beta = .28, t = -5.12, p < .001$)의 경우는 정반대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미한 반면 정신화 능력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beta = -.44, t = -6.21, p < .001$)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beta = -.30, t = -4.04, p < .001$)과 부정적 정서($\beta = .43, t = 5.15, p < .001$)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구조모형은 정신화 능력 변량의 48%, 부정적 정서 변량의 42%, 심리적 통제 변량의 42%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이용하여 개별 간접 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정신화 능력을 거쳐 부정적 정서로 가는 간접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불안애착의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은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회피애착이 부정적 정서를 거쳐 심리적 통제로 가는 간접 경로가 유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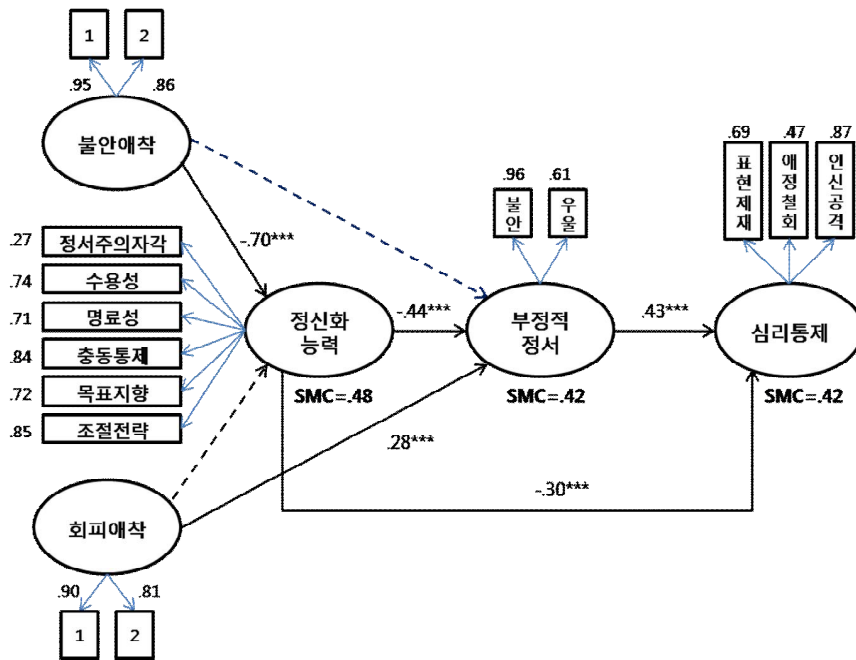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모형

N=357, $***p < .001$

표 3. 최종모형의 직·간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불안애착	→ 정신화	$-.70^{***}$		$-.70^{***}$
회피애착	→ 부정적 정서	$.28^{***}$		$.28^{***}$
정신화	→ 부정적 정서	$-.44^{***}$		$-.44^{***}$
부정적 정서	→ 심리통제	$.43^{***}$		$.43^{***}$
불안애착	→ 정신화 → 부정적 정서	.08	$.31^{***}$	$.39^{***}$
회피애착	→ 부정적 정서 → 심리통제		$.11^{***}$	$.11^{***}$
정신화	→ 부정적 정서 → 심리통제	$-.30^{***}$	$-.18^{***}$	$-.48^{***}$
불안애착	→ 정신화 → 부정적 정서 → 심리통제		$.37^{***}$	$.37^{***}$

주. N=357. $***p < .0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에서 본인의 부정적 정서를 거쳐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로 가는 간접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에 대한 정신화 능력의 직접 효과가 유의한 점을 고려할 때, 부정적 정서는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과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를 거쳐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로 가는 간접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심리적 통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사이 사춘기 자녀를 둔 30, 40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 정서조절능력으로 측정된 정신화 능력, 불안과 우울로 평가한 부정적 정서 및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특히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관련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변인들 간의 3개의 가설적 경로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불안정 애착이 정신화와 부정적 정서를 이중매개로 자녀에 대한 부모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게 나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은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부정적 정

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완전 매개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불안 애착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애착 활성화 상태에서의 정서 경험에 대한 성찰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정신화 능력이 저하되며, 이렇게 자신의 부정적 정서체험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할수록 본인의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체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자신의 고통에 몰입하여 즉각적인 경험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여 현실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 그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경험하게 되어 정신화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에 압도되어 지금-여기에서 일관되게 자기감정을 인식하거나, 회상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될수록 우울 및 불안의 부정적 정서체험이 증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애착 어머니의 경우는 자신의 정서 체험에 대한 성찰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불안애착의 외상적 경험이 부정적 정서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정신화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요한 타인들과의 친밀감을 불편해하면서 인지적, 정서적, 물리적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며 고통스러운 생각과 기억을 억압하고자 하는 회피애착의 특성을 감안할 때, 회피애착 어머니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에 이에 대한 정서적 자각이 결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피애착의 경우 적극적으로 감정적인 격리 및 감정적인 거리 유지가 특징적이며 특히, 애착 관련 느낌들에

대한 자각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피애착의 경우 자기와 타인과의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상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안정적 애착 관계에서 발달하는 능력이 감정조절, 충동 절제, 자기 감지, 자기 대리 경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Fonagy와 동료들의 이론적 주장을 지지한다. 더불어 정서조절이 기본적으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라는 주장과 상위 인지적 자기 조절 능력은 애착형성과정에서 출현(Schore, 2003)하므로 애착체계는 본질적으로 상위인지적인 자기조절 체계(권선중, 김교현, 2008; Schore, 2003; Siegel, 2007)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정 애착일수록 보다 긍정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고,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류수정, 2010; Mikulincer, Shaver, Cassidy, & Berant, 2009; Mikulincer, Shaver, & Perge, 2003; Wei, et al., 2005). 한편 본 결과는 불안정 애착이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김정란, 이은희, 2007; 안명희, 2010; 안하얀, 서영석, 2010; Cassidy & Shaver, 2008; Wei, et al., 2003; Wei, et al., 2005)의 원인요인으로, 불안정 성인 애착이 그 하위유형에 상관없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정서 상태와 관련 있고(Cassidy & Kobak, 1988; Fonagy, et al., 2002), 불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정서조율 능력이 저해되어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체험이 가중된다는 연구결과(안명희, 2010; Kobak, 1999)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본 결과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궁극적으로는 부정적 정서를

가중시키나 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심리적 기제가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으로 평가한 정신화 능력은 심리적 통제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정적 정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이 자녀에 대한 일관적이며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Fonagy와 동료들(200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서우정, 2007: Barlow, et al., 2004; Campbell-Sills, et al., 2006; Garnefski & Kraaij, 2006; Martin & Dahlen, 2005; McFarland & Buehler, 1997; Rude & Macarthy, 2003: 최예종, 조용래, 2009 재인용)를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가중될수록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증가함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우울하고 불안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대한 침해적, 공격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관련연구결과를 확인한다(안명희, 2010; Adam, Gunnar, & Tanaka, 2004; Wood, Mcleod, Sigman, Hwang, & Chu, 2003). 이와 같이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이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 능력이 역기능적 양육태도인 심리적 통제에 대한 강력한 보호요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준다.

넷째,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를 탐색한 결과,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가 이중 매개하는 경로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게 나왔다. 이는 불안애착이 높아 친밀한 대상관계에 대한 몰입과 의존성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상위 인지 능력인 정신화 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우울과 불안의 부정적 정서가 가중되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애착의 어머니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서 순간적으로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잦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도한 긴장과 불안에 압도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적 대처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는 정신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감정 체험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자신의 정서조율 능력을 향상시켜 이를 토대로 자녀에 대한 역기능적 양육 태도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어머니의 회피애착이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경로는 부정적 정서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억압함으로써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정서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전략이 순간적으로는 성공적일 수 있어도 내면에는 정서적인 고통이 잠복되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 정서가 활성화되어 자녀에 대한 태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훈육과정에서 자기 기준을 고수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비난, 질책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심

화된다는 선행연구결과(Downey & Coyne, 1990; Shaver, Segev, & Milkulincer, 2011; Toth, Harris, Goodman, & Capazza, 2011; 안명희, 2010 재인용)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기저에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개입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의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사고와 감정의 원인에 대한 자각과 이해 없이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체험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자녀에 대한 역기능적 양육태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은 생애 초기 애착관계의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정신적 표상을 형성하며, 내적 작동 모델의 연속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후의 수정과 변화에 강력하게 저항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에 대한 성찰 기능 또는 정신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초기 애착 관계에서의 외상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어머니 자신의 애착 관계에 기반한 정신화 능력 및 부정적 정서를 심리적 통제의 원인요인으로 함께 검증한 경우가 없다.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 정신화 능력, 우울과 불안의 부정적 정서 및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불안정한 대인관계에 대한 활성화되는 사고와 정서인 성인애착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과도하고 처벌적이며 어머니 본인의 감정기복에 영향을 받고, 훈육적 태도보다는 인

신 공격 및 죄의식 주기 등의 심리적 공격으로 정의되는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관여한다는 관련연구를 확장하여 어머니의 정신화 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성인애착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는 애착관련 어려움을 보이는 내담자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방향과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 장면의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초기 모-자의 애착관계에서의 경험이 재현되기 쉽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자는 외상적 애착 경험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는 내담자에게 그들의 애착 경험 자체에 대한 탐색이나 치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비언어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에 대해 알아차리는 성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상담 장면에서 외상적 애착경험에 매몰되어 습관적이고 반사적인 부적응적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에게 성찰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이 자녀에게로 세대 간 전수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본 연구는 표집 대상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는 임의표집의 한계와 자기보고에 의존한 제한점도 있다. 자기보고는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정도를 알려 줄 뿐 실제로 특정 행동을 보이는 정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특히 애착관련사고와 정서에 대한 거리두기로 개념화되는 회피애착의 억압적 성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 회피애착을 보이는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와의 실제

상호작용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양상과 자기보고 설문지로 보고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 방법의 특성에 의해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특성을 정확히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정신화 능력의 연구에서는 AAI(Adult Attachment Interview)를 통해 성찰기능척도(Reflective Functioning Scale)를 측정하여 정신화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질문지로 측정한 정서조절능력을 통하여 정신화 능력을 평가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정신화 능력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후속 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 대상은 대부분 중산층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애착 특성을 보이는 일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애착외상 경험이 심각한 임상 집단으로 확장하여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자녀를 둔 30~40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결혼 초기에 해당하며 유아나 아동 등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들에게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에서 정서적 부담과 더불어 애착관련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관련 변인들 간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에 대한 훈육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접근에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영미 (2004). 어머니의 성취동기, 특성불안 및 자녀에 대한 신뢰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권선중, 김교현 (2008). 마음챙김과 자기-조절 그리고 애착.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2-13.
-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란, 이은희 (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 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97-319.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나선영, 안명희 (2011).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한국여성심리학회: 여성, 16(3), 331-355.
- 류수정 (2010). 애착에 따른 정서경험과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enens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서우정 (2007). 정서조절곤란과 수용처치가 대학생들의 불안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명희 (2010a).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 안명희 (2010b).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정윤주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최예중, 조용래 (2009). 정서조절곤란과 수용처치가 대학생의 우울기분 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107-1134.
- Adam, E. K., Gunnar, M. R., & Tanaka, A.

- (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ateman, A., & Fonagy, P. (2004). *Psycho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ew York.
- Benoit, D., & Parker, K.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Robins, E., & Gamble, W.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competence: Toward a contextual theory. In M. Lewis (Ed.). *Beyond the Dyad*. New York: Plenum.
- Bouchard, M., Target, M., Lecours, S., Fonagy, P., Tremblay, L., Schachter, A., & Stein, H. (2008). Mentalization in adult attachment narratives: reflective functioning, mental states, and affect elaboration compared. *Psychoanalytic Psychology*, 25, 47-66.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201-210, 421-431).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d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urnette, J. L., Davis, D. E., Green, J. D., Worthington Jr. E. L., & Bradfield, E. (2009). Insecure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rumination, empathy and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 276-280.
- Cassidy, J., & Kobak, R. R. (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defensive processes.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300-323), Hillsdale, NJ: Erlbaum.
- Cassidy, J., & Shaver, P. R. (Eds.). (2008).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hoi-Kain, L. W., & Gunderson, J. G.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 1127-1135.
- Cicchetti, D., & T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 Fonagy, P. (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Other Press.

- Fonagy, P. & Bateman, A. W. (2007). Mentaliz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Mental Health, 16*(1), 83-101.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NY. Other Press.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9*, 679-700.
- Gratz, K. I.,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41-54.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Gur-Yaish, N., & Campa. (2004). What does it mean to be attached?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dult attachment*, (pp.55-85). New York: Guilford Press.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obak, R. (1999). The emotional dynamics of disruption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ntervention.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21-43). New York: Guilford.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3), 239-266.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53-152, New York, NY: Academic Press.
- Mikulincer, M., Shaver, P. R., Cassidy, J., & Berant (2009). Attachment-related defensive processes in Obegi, J. H. & Beranrm E. (eds.) *Attachment theory and clinical work with adults* (pp.293-327).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ge,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Papalia, D. E., & Olds, S. W. (1995) *Human Development*, 6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1995), p.346.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 583-598.
- Rudden, M., Milrod, B., Target, M., Ackerman, S., & Graf, E. (2006). Reflective functioning in panic disorder patients: A pilot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54*(4),

- 1339-1343.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chore, A. N. (2003). *Affect dysregulation and disorders of the self*. New York: W. W. Norton.
- Shaver, P. R., Belsky, J., & Brennan, K. A. (2000).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self-reports of romantic attachment: Associations across domains and methods. *Personal Relationships, 7*, 25-43.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2), 133-161.
- Siegel, D. J. (2007). *The mindful brain*. New York: W. W. Norton.
- Skarderud, F. (2007). Eating one's words, part II: The embodied mind and reflective function in anorexia nervosa-theory.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5*(4), 243-252.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5). Maladaptive perfectionistic self-representations: The mediational link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2), 487-498.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and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 Wei, M., Heppner, P. P., & Mallinckrodt, B. (2003). Perceived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38-447.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591-601.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 Wood, J. J., Mcleod, B. D., Sigman, M., Hwang, W. C., & Chu, B. C. (2003).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134-151.
- 1 차원고접수 : 2012. 7. 30.
심사통과접수 : 2012. 8. 31.
최종원고접수 : 2012. 9. 28.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Control: Mediating Role of Mentalization and Negative Emotion

Hyunjoo Lee

Christian Myunghee Ah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pathway of influence among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mentalization, negative emotion in terms of anxiety and depression,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ased on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this study propos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here maternal ability for mentalization as measured by emotional regul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negative emot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Results based on a sample of 357 mothers in their 30's and 40's with their first child in 4th through 9th grade, indicated that the hypothesized theoretical model had the best model fit. The adopted model indicates that the influence of attachment anxiety on psychological control was mediated by mentalization and negative emotion. The attachment avoidance, however,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mentalization but had significant effect on negative emotion, which, in turn significantly influence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for attachment anxiety, mentalization is a protective factor for negative emotion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lso, the link between mentalization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as partially mediated by negative emotion. The findings also suggest separate and independent pathways of influence for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Importance of mentalization as buffering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psychological control, and effect of maternal negative emotion on psychological control toward adolescent children are discussed. Limitations of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investigations are included in the discussion.

Key words : *insecure adult attachment, mentalization, anxiety, depressio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dolescents*